

PPE 줄이고 제품 믹스 개선... 고수익 의류 OEM 가동

<개인보호장비>

metro 관심종목

한세실업

2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활성화, 생산성 향상 맞물려 대신증권 목표주가 3만5000원 제시

글로벌 의류수출기업인 한세실업이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2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 베트남 코로나 확산세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연된 매출이 4분기에 반영되면서 연간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

지난 2분기 한세실업의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113억원, 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179%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187억원)를 64.78%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매출액의 경우 방역 제품 특수(2020년 2분기 600억원 규모)를 제하면 23.8%나 올랐다.

한세실업의 호실적은 전방시장의 활



한세실업 베트남 원단 가공 공장

/한세실업

성화와 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두루 반영된 결과란 평가다. 먼저 미국에서 의류 소비가 회복되면서 GAP 등 대형 바이어들의 주문이 늘어났다. 재고를 확충하려는 수요도 발생하면서 매출 성장세에 힘을 더했다. 기업 차원에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PPE(개인보호장비) 비중을 줄여 제품 믹스를 개선하고, 고수익 주문 비율을 높이며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스마트팩토리 활용률을 높인 것도 원가 절감에 기여했다.

하누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매출

원가율이 5.8%포인트(p)나 줄었고, 원재료비의 상당분을 차지하는 면화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분기와 달리 이어지는 3분기엔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베트남(58%)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장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지엄취했고, 아이티(8%)에서도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품 납기가 연장되고 항공 운송비 등 운반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수기임에도 3

<한세실업 목표주가>

/각사

증권사	목표주가
대신증권	3만5000원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3만4000원
메리츠증권	3만20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3만원
KTB투자증권	2만8000원
하나금융투자증권	2만4000원

분기 영업이익의 예상 컨센서스가 291억원으로 2분기보다 낮게 설정된 이유다.

서현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망치가 하락해, 미국 수출을 매출 베이스로 가진 한세실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9월 이후 베트남 공장 재가동 여부와 오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생산 차질로 인한 실적 하락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분석이 많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4분기에

오히려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 의류 OEM기업들의 바로미터인 대만 기업들의 주가도 동일한 이유로 급락했다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생산지 리스크에 따른 주가 조정도 마무리 단계로 판단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심지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생산차질이 있음에도 오더 캔슬이 아니라 4분기로 매출이 밀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3분기 추정치는 하향하되 4분기 추정치는 상향했다”고 밝혔다.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한세실업의 영업이익의 예상치는 1094억원으로, 작년(649억원)과 재작년(849억원)에 비해 각각 69%, 2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보면 8개 증권사들은 모두 매수 의견을 냈다. 목표 주가는 3분기 조정 평가에 따라 엇갈렸다. 대신증권은 9.38% 상향 조정하며 3만5000원으로 가장 높은 주가를 제시한 반면, 하나금융투자는 20% 하향 조정된 목표주가 2만4000원을 제시했다.

/양유경 기자 noon@metroseoul.co.kr

라돈 기준치 3배 검출... 시공사 “환기가 최선”

수원 파크 푸르지오 라돈 검출 논란

457.4Bq/m³ 농도 라돈 검출 명확한 해결책 없이 입주 진행

기준치를 웃도는 라돈 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환기’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오염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12가구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00Bq/m³를 넘겼고, 10곳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인 148Bq/m³를 초과했으며 최대 457.4Bq/m³ 농도의 라돈이 검출됐다. 검출장소는 화장실, 파우더룸 등으로 알려졌다.



최대 457.4Bq/m³ 농도의 라돈이 검출된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뉴스1

라돈은 국제암연구기관(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시멘트, 화강암 등에서 발생한다. 무거운 기체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하실 등에서 많이 검출된다. 특히 환기에 소홀하기 쉬운 겨울철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WHO 역시 전 세계 폐암의 15%가 라돈이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침대, 생리대, 배개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연이어 검출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당시 ‘라돈 이슈’로 법이 개정됐고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실내 라돈 권고기준은 148Bq/m³로 강화됐다.

실내라돈저감협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라돈 연속측정법으로 평균 148Bq/m³ 이하여야 한다. 화서역 푸르지오는 그 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200Bq/m³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2배가 넘는 400Bq/m³의 라돈이 측정됐다.

이번 라돈 검출 사태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라돈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라면 어디서든 발생한다”며 “이번 건의 경우 자재를 교체할 수준은 아니며 3~4일 정도 환기만 시키면 충분히 해결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이 시공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입주는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2355가구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롯데건설, 괴정6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692가구 규모, 공사비 1574억

롯데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오 디토리움에서 열린 ‘괴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5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괴정6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486-20 일원에 연면적 10만9552㎡, 지하 4층~지상 29층, 9개동, 총 692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1574억원이다.

현재 괴정6구역 인근은 괴정2·3·5구역 및 사하지역주택조합사업 그리고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중인 괴정7구역까지 재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롯데건설은 도시의 시크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커튼월과 거대한 액자 형태의 메가 프레임 구조물을 설치해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완

성하고, 괴정6구역을 괴정역 일대의 명품단지로 만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개인 독서실 및 도서관, 라운지 클럽, 언택트 재택근무 트렌드에 맞춘 비즈니스룸 및 미팅룸, 어린이집 등 권역 최고 시설의 커뮤니티 시설과 야외 정원, 예술적 조형광장 그리고 단지 순환 산책길 등 특화된 조경을 선보인다.

여기에 유통 명가 롯데의 노하우를 통해 외부고객 유입이 가능한 연도형 상가를 만들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미분양 우려를 해소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산에서의 풍부한 수주 실적과 검증된 시공능력을 믿어주시는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롯데캐슬 안에서 주거 만족감은 물론, 차별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한국거래소, ‘KRX 청렴윤리주간’ 운영

한국거래소가 6일부터 5일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께 만드는 청렴 KRX’란 슬로건으로 ‘KRX 청렴윤리주간’을 운영한다.

거래소는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일깨우고,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청렴윤리주간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행사 세부내용으로는 기관장의 청렴 철학과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담은 CEO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공표하고, 팀장

이상 직책보임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 온라인 서약행사를 실시한다. 이들이 청렴리더로서의 솔선수범과 반부패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조직내 청렴 인식 변화 주도 및 전 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다.

본부장 이상 경영진은 공직윤리 및 청렴리더십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하며,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청렴 법규에 관한 집중상담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 청렴 지식함양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이어 청렴 또는 반부패 관련 자유주제로 사내 청렴표어를 공모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임직원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가운데)이 ‘KRX 청렴윤리주간’을 맞아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 슬로건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렴온라인 퀴즈 대회도 진행한다. 특히 민간 부문의 청렴문화 확산과 KRX 청렴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 청렴퀴즈(반부패 상식) 이벤트도 개최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

대구·김포 등 3433가구 청약 접수

분양 캘린더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3433가구(오피스텔, 주상복합, 국민임대 포함, 신촌희망타운,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5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분리동 ‘달서 SK VIEW’, 중구 태평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북구 칠성동 ‘대구역자이더스타’ 등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에서 ‘풍무역 파크 트루엘’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건본주택은 7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안양시에서는 ‘평촌 엘프라우드’의 사이버 건본주택이 개관한다.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평촌에 위치하고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에서는 ‘양평 우방 아이유셀 에코리버’, ‘동두천중앙역 엘크루 더퍼스트’ 건본주택의 문을 연다. 인천에서는 용현·학익지구 ‘시티오씨엘 4단지’의 건본주택이 개관한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힐스테이트 동인’도 지난 3일 건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당첨자 발표는 9곳, 계약은 16곳에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